

돌봄이 커리어가 되는 정책 (Care to Career)

핵심 아이디어

가족돌봄청년(19~34세 취업준비 단계)의 돌봄 경험을 국가 공인 역량으로 전환 — 케어-크레딧, 사회적 돌봄 기여 역량 인증서, 돌봄 친화 기업 채용 연계로 복지에서 고용으로 이어지는 경로 제도화

핵심 문제 인식

가족돌봄청년 약 15만 3천 명, 주당 평균 돌봄 21.6시간, 우울감은 일반 청년의 7배 / 현행 제도는 위기 안정화·생계 지원에 집중되어 돌봄 경험을 경력으로 전환하는 경로와 기업 참여 유인이 없음

주요 제안 내용 1

케어-크레딧 (취업준비 특화)

- 자기돌봄비(복지부·생계)와 역할 분리, 고용노동부 지급
- 중위소득 150% 이하 + 돌봄 기여도 등급(A~C)
- 분기 30~60만 원 목돈 바우처 (자격증·직업훈련·컨설팅)
- 행정 데이터 연동으로 과도한 증빙 서류 폐지

주요 제안 내용 2

사회적 돌봄 기여 역량 인증서

-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 발급, 유효기간 없음
- 돌봄 경험을 위기관리·리소스 매니지먼트 등 채용 언어로 번역
- 돌봄경력전환코디네이터가 STAR 기법 포트폴리오 코칭
- 정신질환 가족 돌봄도 동등하게 인증 대상 포함

주요 제안 내용 3

돌봄 친화 기업 인증·채용 연계

- 영국 Carer Positive형 3단계 인증(참여-정착-모범)
- 공공기관 별도 전형, ESG 가점, 중소기업 고용지원금 우선 참여
- 기존 채용박람회 내 '케어 커리어 부스' 운영
- 채용 수치가 아닌 6개월·1년 정착률로 인증 갱신

기대효과

1

돌봄 청년의 경력 단절 회복

연 1만 명 등록·인증서 3천 건, 취업 연계율 60% 목표

2

기업의 인재 확보와 ESG 가치

고용지원금·브랜드 자산, 누적 200개사 인증

3

연 227억 원 규모의 현실적 설계

부처 역할 분리로 중복지원 논란 차단

빈자리 커튼콜 : 청년 공연문화 환급 리시트

핵심 아이디어

공연장·전시장의 잔여좌석과 청년이 사용하지 못한 문화지원 기회를 개인별 '공연문화 환급 리시트'로 정산하여, 청년에게는 맞춤형 문화 환급 티켓을, 공연예술계에는 새로운 관객을 연결

핵심 문제 인식

문화패스·문화이용권이 발급되어도 정보 탐색·시간·심리적 부담 때문에 실제 관람 경험으로 전환되지 않음 / 공연장에는 회차별 빈 좌석이 남는데, 이 둘을 공공적으로 연결하는 장치가 부재

주요 제안 내용 1

청년 공연문화 환급 리시트

- 본인 동의 기반으로 신청 가능·미사용 문화지원 현황을 정산
- "지원금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번 주 갈 수 있는 공연"을 제시
- 관람 후기와 선택 장르를 반영한 후속 추천
- 친구 1인 동반관람 티켓으로 첫 관람 부담 완화

주요 제안 내용 2

빈자리 커튼콜 · 책임형 예약

- 공연·전시 시작 72시간 전부터 잔여좌석 등록 → 정가 시장과 충돌 최소화
- 완전 무료가 아닌 0~5,000원 소액 결제·예약보증금
- 관람 확인 시 보증금 환급, 반복 노쇼는 이용 제한
- 좌석당 보전금 지급으로 공연장·제작사 참여 유인

주요 제안 내용 3

공공성 확보와 시범운영

- 소극장·공공공연·지역공연·청년예술인 공연 우선 노출
- 수도권·광역시·비수도권 문화거점 각 1개 권역 1년 시범
- 관람 전환율·잔여좌석 전환율·노쇼율·재관람률로 평가
- 정부·지자체는 비식별 통계만 활용

기대효과

1

문화지원의 실제 관람 전환

발급률이 아닌 사용률·재관람률로 성과 관리

2

공연예술계 신규 관객 개발

빈 좌석을 청년의 첫 관람 경험으로 전환

3

청년 문화접근권 확대·고립 완화

가격·정보·시간·심리 장벽을 동시에 낮춤

청년 첫경력 사회책임제와 채용관행 선진화를 위한 정책제안

핵심 아이디어

국가 성장의 과실을 청년의 첫 일자리로 환류 — ①신입채용 의무제 ②기업별 채용정보 공시제 ③채용공고·채용절차 투명화제를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추진

핵심 문제 인식

기업은 경력을 요구하지만 사회는 첫경력을 보장하지 않는 구조적 모순 / 연봉·연차·고용형태·수습조건·전형단계가 불투명하고, 계약직 공고의 “정규직 전환 가능” 문구가 채용 유인책으로 오용

주요 제안 내용 1

신입채용 의무제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청년 첫경력 정규직 신입채용 의무 부과
- 기업규모별 기준률(0.5~1.2%) × 기업·산업 성장여력 계수(0.5~1.3)
- 정원 기준·신규채용 구성기준 중 큰 값 적용 → 채용 축소 회피 차단
- 5,000명 → 1,000명 → 300명 기업으로 단계적 확대

주요 제안 내용 2

기업별 채용정보 공시제

- 첫경력 채용률·의무 이행률, 신입 12·24개월 유지율, 수습탈락률 공시
- 계약갱신율·정규직 전환율·전환 후 유지율 공개
- 사람인·잡코리아 등 민간 채용플랫폼 기업정보 화면에 연동

주요 제안 내용 3

채용공고·채용절차 투명화제

- 연봉밴드는 최대 1,000만 원, 연차밴드는 최대 5년 이내 폭으로 표시
- 수습조건·전형단계·과제전형 소요시간·보상 유무 표시 의무화
- 계약직 표준 안내문구 삽입, 정규직 전환 암시 표현 제한

기대효과

1

청년 첫 정규직 경력 통로 확대

무경력·초년 경력 청년의 진입문 확대

2

불필요한 지원·전형 부담 감소

조건 불일치로 소모되는 시간·비용 절감

3

기업 채용브랜드·미래 인재 확보

숙련 인력 공급 기반 및 채용시장 신뢰 회복

현장에서 성장하는 로드맵, '청년동행 트랙'

핵심 아이디어

나라장터 공공조달 사업에 '청년동행 트랙'을 신설하고 정부가 청년과 수행기관의 매칭을 알선하여, 청년이 실제 사업 현장에서 실무 역량을 쌓고 산·학·연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지원

핵심 문제 인식

청년 취업자 43개월 연속 감소, 구직 단념 '쉬었음' 청년 48만 5천 명 / 부트캠프·단기 인턴·금전지원은 실전 경험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AI 확산으로 신입에게 요구되는 역량 기준만 빠르게 상승

주요 제안 내용 1

공공조달 '청년동행 트랙' 신설

- 연 225조 원 규모 나라장터 발주 수요를 청년의 첫 발판으로 전환
- 참여기관은 입찰 시 청년 담당 업무·투입 기간·멘토링·산출물 기여 계획 제출
- 발주처는 기존 절차 그대로, 청년 참여계획에 적정 수준 가산점 부여
- 새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기존 사업 수요를 활용

주요 제안 내용 2

정부의 '공공형 헤드헌터' 역할

- 청년 인재풀 운영 및 청년 역량카드(전공·수행 가능 업무·AI 활용능력·포트폴리오) 표준화
- 참여기관 수요와 청년 역량을 비교해 매칭 알선
- 청년 인건비 일부 지원으로 기관 부담 완화·정당한 보수 보장
- 사업 종료 후 수행 실적을 실무경험 기록으로 관리

기대효과

1

청년, 실제 수행실적과 네트워크 확보

교육생이 아닌 공공사업 참여자로 성장, AI 활용 역량 검증

2

기관, 채용부담 없는 인력 확보

입찰 가산점으로 공공사업 경쟁력까지 강화

3

정부, 신규 예산 없는 지속가능 구조

고용주가 아닌 연결자 역할로 정책 효율 제고

'기후플레이션' 시대 청년 식비 경감을 위한 농가 상생형 '그린 밀 패스'

핵심 아이디어

대학가 편의점·골목 마트를 산지 직송 '못난이 농산물' 거점 공급처로 지정해 유통 마진을 낮추고, 정부 매칭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년 식비 부담 완화와 농가 소득 보전을 동시에 달성

핵심 문제 인식

기후플레이션 상승화로 신선식품 가격이 급등해 청년 1인 가구의 식탁이 부실해지는 반면, 산지에서는 규격 외 농산물이 폐기 / '천원의 아침밥'은 시간·공간 제약으로 자취생의 저녁·식재료 부담을 못 메움

주요 제안 내용 1

대학가 그린 밀 거점 존 지정

- 대학가·원룸촌 편의점 및 동네 슈퍼와 MOU 체결
- 경매·도매 등 3~4단계 중간 유통 전면 생략
- 1인 가구 맞춤 소포장 식재료를 시중가 대비 30~40% 인하 공급
- 골목상권 마트를 '거점 1호점'으로 우선 지정

주요 제안 내용 2

그린 밀 패스 모바일 바우처

- 만 19~29세 대학생·휴학생·취업준비생(1인 가구 우선)
- 본인 1만 5천 원 + 정부 3만 5천 원 = 월 5만 원 매칭
- 간편결제 연동, 신선식품·건강식단만 결제 승인
- QR 본인인증·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부정사용 차단

주요 제안 내용 3

'오늘의 그린' 재고 매칭 앱

- 산지 당일 수확량과 거점 점포 재고를 실시간 연동
- 마이크로 물류 알고리즘으로 잔여 물량 배분
- 앱으로 선점(예약)한 뒤 귀가 시 수령
- 방학기 잔여 재고는 푸드뱅크·지역 주민과 연계

기대효과

1

청년 월 식비 20% 이상 절감

산지 직송 인하 + 바우처로 체감형 물가안정

2

규격 외 농산물의 고정 판로 확보

폐기 비용 절감과 농가 소득 안정화

3

청년 건강권 보장·사회비용 절감

영양 개선으로 미래 만성질환 및 건보 지출 예방

마음PING : 새벽 2시, 내 마음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AI 정서안전망

핵심 아이디어

별도 앱 설치나 상담 신청 없이 카카오톡·네이버·유튜브 등 일상 플랫폼에서 “마음핑 보내기”만으로 캐릭터형 AI 정서동행자를 즉시 호출할 수 있는 24시간 마음안전망

핵심 문제 인식

마음의 위기는 행정서비스 운영시간에 맞춰 오지 않고 휴대폰 화면 앞에서 먼저 발생 / 기존 제도는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신청·예약·방문해야 하는 구조여서 지친 청년에게는 문턱이 높음

주요 제안 내용 1

일상 플랫폼 호출 · 캐릭터형 AI

- 카카오톡 채널, 네이버 검색어, 유튜브 숏폼에 진입 경로 탑재
- ‘상담 신청’이 아니라 친구에게 신호 보내듯 ‘마음핑 보내기’
- 경청형·현실조언형·루틴코치형 등 페르소나 선택
- 실존 인물 무단 복제 금지, 공공형 가상 캐릭터만 활용

주요 제안 내용 2

마음 번역 · 단계별 회복 경로

- “그냥 다 싫어”를 감정·원인·필요한 도움·지금 할 행동으로 정리
- 1단계 생활회복 루틴 → 2단계 상담사업 안내
- 3단계 청년센터·진로상담 → 4단계 고위험 신호 긴급 연계
- 다음 날 사후 체크인으로 회복 루프 형성

주요 제안 내용 3

공공서비스 연계와 안전장치

- 기존 마음건강 사업·바우처·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이어지는 디지털 관문
- AI는 진단·치료가 아닌 1차 정서지원과 연계로 한정
- 개인정보 최소수집·익명화·대화기록 삭제권 보장
- 장시간 이용 시 휴식 알림, 현실 회복 행동으로 유도

기대효과

1

혼자 버티는 시간을 줄임

밤·새벽·실패 직후에도 1차 정서지원 접근 가능

2

상담자원의 효율적 배분

상태별 분류로 전문 개입이 필요한 청년을 정확히 연결

3

고립·은둔·번아웃 조기 대응

위기 심화 전 초기 신호 포착, 별도 앱 개발비 절감

청년 생애위기 보험 (청년 생애위기 리셋보험제)

핵심 아이디어

실직·전세사기·폐업·건강 악화·가족돌봄·장기 구직 실패 등 생애위기 발생 직후 6개월간 생활비 체납, 신용 하락, 심리 악화, 사회적 고립을 동시에 막고 재도전 경로까지 연결하는 예방형 생활 안전망

핵심 문제 인식

문제는 정책의 부재가 아니라 연결의 부재 / 실직 → 월세 체납 → 대출 연체·신용 하락 → 우울·고립 → 구직 포기로 이어지는 연쇄 추락이 6개월 안에 진행되지만, 지원은 체납·연체 이후에 시작

주요 제안 내용 1

6개월 리셋 패키지

- 생활유지 : 월세·공과금·통신비를 체납 전 단계에서 목적형 지급
- 신용 : 연체 전 채무조정 상담·상환유예·신용관리 교육
- 마음건강 : 초기 심리검사와 1:1 상담 비용 포함
- 법률·주거 및 8주차부터 재도전 계획 수립

주요 제안 내용 2

위기 유형별 지원 설계

- 기본형 월 30만 원(3개월), 집중형 월 50만 원(6개월)
- 긴급형 1회 100만 원 이내, 전환형 월 20만 원(3개월)
- 현금 일괄 지급이 아닌 기관 직접지급·목적형 바우처
- 실직확인서·피해 결정자료 등 최소 증빙으로 도덕적 해이 방지

주요 제안 내용 3

청년센터를 사례관리 허브로

- 1회 통합 진단으로 생활·주거·신용·심리·일자리 위험 점검
- 고용센터·주거복지·정신건강·서민금융·신용회복위 연계
- 종료 후 6개월간 월 1회 사후관리로 재위기 방지
- 5개 권역 시범사업 후 성과 평가에 따라 단계적 확대

기대효과

1

위기 직후 연쇄 추락 차단

체납·연체·신용 하락·심리 악화를 사전 예방

2

사후 복지비용 절감

장기실업·채무불이행·고립은둔 전환 감소

3

노동시장 이탈 방지와 재도전

단기 실패가 장기 경력 단절로 굳어지지 않도록 완충